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8호 [루게 제23080호] 주제99 (2010)년 5월 8일 (토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나가자!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호금도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5월 3일부터 7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 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김영춘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 동지, 김기남 동지,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장성택 동지, 김영일 동지, 김양건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주규창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 동지, 리명수 동지, 조선로동당 합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태중수 동지,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김평해 동지가 수행하였다.

중국의 당 및 국가령도자들은 형제적 중국인민에 대한 두터운 친선의 정을 안고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신 김정일 동지를 열렬히 환영하고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였다.

베이징에 도착하신 김정일 동지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가경림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베이징시당 서기인 류기동지, 국무위원 대법관 동지가 맞이하였다.

김정일 동지와 호금도 동지사이의 상봉과 회담이 5일과 6일 2일간에 걸쳐 베이징에서 진행되었다.

상봉과 회담에는 중국측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인 습근평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이며 당중앙위원회 판공청 주임인 평계희 동지, 국무위원 대법관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왕가서 동지, 외교부장 양걸지 동지,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홍재 동지가 참가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회담에서 활력에 넘쳐 끊임없이 전진하고있는 중국의 동북지방을 방문한데 대한 소감을 피력하시었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동지적이며 진지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기 나라의 형편을 각기 통보하시고 조중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견해 일치를 보시였다.

호금도 동지는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김정일 동지의 중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하고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 위하여 벽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전체 조선인민에게 친절한 인사를 전하시였다.

호금도 동지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고귀한 재부이며 조중친선을 시대와 더불어 전진시키고 대를 이어 전해가는것은 쌍방의 공동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하면서 조중친선협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지적하시였다.

호금도 동지는 중조협조를 강화하는것이 두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 추진시키고 쌍방의 공동이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더 잘 수호하고 촉진시키는데 유리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일련의 대책적문제들을 제기하시였다.

호금도 동지는 중국측은 조선측과 공동으로 노력하여 전통적인 조중친선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주입하고 조중친선우호

협조관계를 추동하여 더욱 깊이있게 발전시킬것으로써 두 나라, 두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마련하며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발전 에 더 큰 기여를 하려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호금도 동지의 친절한 초청과 뜨거운 환대에 사의를 표하시고 베이징에서 또다시 상봉하게 된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친선은 력사의 풍파와 시련을 이겨낸 친선으로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달라질수 없다고 하시면서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의 승고한 국제주의적정신을 거울로 삼아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조선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와 결심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중국인민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상해세계박람회가 성과적으로 개막된것은 중국의 국력에 대한 시위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회담에서는 최근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중최고령도자들의 력사적인 상봉 이후 두 나라사이의 선린, 친선과 협조가 더욱 증진발전되었다고 평가하고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호상지지와 연대성이 표시되었다.

호금도 동지는 조선이 안정을 수호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김정일총비서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국가건설위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둔것을 축원하시였다.

호금도 동지는 조선당과 인민이 사회주의의 발전방향을 견지하고 조선동지들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것을 지지하며 김정일 동지의 령도밑에 전당, 전국이 긴밀히 단결하고 간고분투하여 강성국가건설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호금도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국인민이 당의 집권능력건설을 강화하고 과학적 발전관을 실천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력사적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믿는다고 지적하시였다.

쌍방은 또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 특히 동북아시아정세와 조선반도의 비핵화문제와 관련하여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이 조중 두 나라, 나아가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각국의 공동의 리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9.19 공동성명의 립장에 따라 반도의 비핵화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6자회담의 유관자들이 9.19 공동성명을 리행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목표를 견지하고 6자회담에서 이룩된 공동성명을 리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우리의 기본립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조선측은 각측과 함께 6자회담의 체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용의를 표명하시였다.

호금도 동지는 중국측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을 포함한 각 유관측과

공동으로 노력하여 6자회담과정이 계속 전진하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호금도 총서기 동지께서 편리한 시기에 다시금 조선을 방문할것을 초청하시였으며 호금도 동지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고 초청을 쾌히 수락하시였다.

김정일 동지의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호금도 동지께서 5일 저녁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리시였다.

연회에는 김정일 동지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김영춘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 동지, 김기남 동지,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장성택 동지, 김영일 동지, 김양건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주규창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 동지, 리명수 동지, 조선로동당 합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태중수 동지,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김평해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가경림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리자춘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인 습근평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베이징시당 서기인 류기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팽백운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이며 당중앙위원회 판공청 주임인 평계희 동지, 국무위원 대법관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왕가서 동지, 외교부장 양걸지 동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의 주임 장평동지, 첩보부장 류지근 동지, 문화부장 채무동지, 재정부장 사옥인 동지, 상무부장 천덕명 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홍재 동지가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호금도 동지께서 김정일 동지를 환영하여 중국의 예술인들이 특별히 준비한 이례로운 예술공연이 있었다.

연회는 시종 우애의 정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6일 속소를 방문한 호금도 총서기 동지와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고 그의 동행에 베이징교외에 있는 박오 생물유한공사를 참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유한공사를 돌아보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이 사람들의 건강 증진을 비롯하여 인류의 복리를 위한 최첨단과학연구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한데 대해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공사에 <최첨단의 커다란 성과를 달성한 생물 의료과학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더욱 빛나는 길을 개척하기를 바랍니다.>

2010. 5. 6
김정일

이라는 친필을 남기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오방국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총리 동지인 온가보 동지와 상봉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6일 속소를 방문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오방국 동지는 중국을 또다시 방문하신 김정일 동지를 열렬히 환영하고 이번 방문이 조중친선관계발전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방문성과를 축하하였다.

그는 력사를 돌이켜보면 조중의교관계 수립후 60년은 국제정세의 파동이 심한 60년이였으며 조중 두 나라 인민이 손잡고 함께 전진하면서 분발한 60년이였으며 조중관계가 시련을 이겨내고 높은 단계에 발전해온 60년이였다고 말하였다.

오방국 동지는 두 나라의 로세대령도자들께서 마련해주고 장구한 혁명의 불길속에서 두 나라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피로써 다져온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는것은 중국당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중국당과 정부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자랑찬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고 말하였다.

오방국 동지는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방침에 따라 두 당 총비서들이 이룩한 공동의 인식을 계속 실천에 옮기며 조중선린우호협조의 내용을 부단히 풍부히 함으로써 조중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오르도록 전면적으로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선당과 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두 나라 고위급의 래왕과 협조를 부단히 심화시켜나갈 용의를 표명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국무총리 온가보 동지와 상봉하시고 친근한 우애의 정을 나누시였다.

여기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서기인 하국강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인 주영강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무부총리인 왕기산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왕가서 동지,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홍재 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온가보 동지는 중국을 방문하신 김정일 동지를 열렬히 환영하고 두 당,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그이께서 기울이신 헌신적인 노력과 중요한 공헌을 찬양하였다.

온가보 동지는 조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거대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데 대해 중국인민은 자기 일처럼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김정일총비서 동지의 올바른 전략과 파감한 결단, 정력적인 령도의 결과이라고 말하였다.

온가보 동지는 력사의 시련을 이겨낸 조중친선은 불세이리라고 하면서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마련하시고 키워주신 전통적인 조중친선이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훌륭히 계승발전되고있는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온가보 동지는 김정은 동지와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특히 경제 무역협조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정형에 대하여 소개해드렸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온가보 동지가 나라의 경제전반과 인민생활을 총괄해야 하는 분명한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뜨거운 환대를 베풀어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 하시면서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변천된 대면서, 친친시를 비롯한 동북지역을 방문하는

과정에 력사적략후성을 가버리고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중국의 발전모습을 목격하면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으며 동지로서, 벗으로서 중국의 모든 일이 잘되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중쌍방이 많은 측면에서 서로 배우고 경험을 교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중국이 중국공산당 제17차 대회정신에 따라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거둔것을 충심으로 축원하시였다.

김정일 동지를 환영하여 국무총리 온가보 동지가 성대한 연회를 차리였다.

호금도 총서기 동지는 중국방문을 마치시고 베이징을 떠나시는 김정일 동지와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귀국하시는 김정일 동지를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가경림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베이징시당 서기인 류기동지, 국무위원 대법관 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지도간부들이 배례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귀국하시는 길에 료녕성의 소재지인 심양시를 방문하시였다.

김정일 동지를 심양역에서 료녕성당 서기 왕민 동지, 료녕성 성장 진정고 동지, 심양시당 서기 증용 동지, 심양시장 진해파 동지를 비롯한 성과 시의 지도간부들이 맞이하였다.

왕민 동지는 김정일총비서 동지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성과를 축하하고 심양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료녕성당 서기 왕민 동지를 비롯한 성과 시의 지도간부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심양송풍기유한공사, 심양제1기계제작공장, 오랜 력사유적인 북룡공원을 참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첨단기술을 받아들여 공장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생산을 부단히 높이고있는 심양시로동계급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의 심양시방문을 환영하여 료녕성당과 심양시당에서는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지성어린 선물을 드리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료녕성과 심양시의 지도간부들과 전체 근로자들이 각별한 친근감을 가지고 환대하여준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하시면서 심심한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중친선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이번에 진행하신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을 호금도 동지와 중국의 당과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뜨거운 환대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방문결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중국의 당과 정부 지도간부들의 극진한 환대에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은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가일층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일대 사변으로서 조중친선의 년대기구에 빛나게 기록될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시였다

연회에서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연설

존경하는 호금도총서기동지, 친근한 중국동지들, 나는 존경하는 호금도총서기동지의 따뜻한 초청으로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여 총서기동지를 비롯한 중국동지들과 뜻깊은 상봉을 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먼저 호금도총서기동지가 매우 바쁜 일정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고 훌륭한 연설을 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나는 우리가 대련시와 친진시를 참관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에 귀속을 방문하여 자연이 가져다주는 봄날의 따스함보다 더 뜨거운 형제적중국인민의 친선의 정을 체부로 느끼면서 오래전부터와보고싶었던 중국 동북지방을 돌아보았습니니다. 우리는 이번 방문기간 호금도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오랜 공업기치인 동북을 진흥시키는데 대한 전략에 따라 중국 동북지방 인민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고있는데 대하여 직접 목격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번에 지난 19세기 제국주의력강들의 조계지로, 세력권쟁탈전의 란무장으로 무참히 뜯겨우고 짓밟혔던 대련과 천진이 오늘을 세기적락후성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천지개벽을 이룩한 참신한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니다. 우리는 지난날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왔던 수억만의 중국인민

들이 오늘은 활력에 넘쳐 팽활한 중화의 대지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있는 벅찬 현실을 통하여 중국공산당의 정책이 중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매우 정당한 정책이며 그것이 전국의 가는 곳마다에서 자기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중국에서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이 경이적인 사변들은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증해주고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적친방인 중국에서 모든 일이 잘되는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견지하고있는 사회주의가 필승불패이라는 신념을 더욱 굳게 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적중국인민이 호금도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요》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중국공산당 제17차대회정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조화롭게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를 일떠세우며 전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당면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1기 제3차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에 제 11차 5개년계획기간의 경제 및 사회발전목표를 완전히 실현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며 성장률이 개미란 상해세계박람회와 앞으로의 광둥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과적으로 주최함으로써 부강번영하는 중국의 국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칠것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조중친선의 력사적증거자인 중국의 동북지방을 돌아보면서 일찌기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중국의 로세대

혁명가들과 함께 피어던 반일공동투쟁을 벌리시면서 마련해주시고 우리에게 물려주신 공동의 재부인 조중친선의 귀중함을 다시금 되새겨볼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당 중앙령도집단이 시종일관 조중관계를 전략적전지에서 중시하면서 친선관계강화발전이 깊은 판심을 돌리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위업에 진심으로 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있는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가며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는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고있으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지난해 력사상 처음으로 《조중친선의 해》를 설정하고 고위급대담대담회와 일 있는 행사들을 잘 진행하여 조중친선의 불패성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조중친선이 계속 공고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이번 중국 방문이 우리들사이의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호상리해를 가일층 증진시킨 훌륭한 계기로 된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공동의 재부인 조중친선을 보다 전면적으로 활력있게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앞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더욱 융성번영하기를 축원하며, 존경하는 호금도총서기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중국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연회에서 하신 호금도총서기동지의 연설

존경하는 김정일총비서동지, 친애하는 조선동지들, 동지들과 벗들, 봄기운이 완연한 아름다운 계절에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당과 정부, 중국인민에 대한 조선당과 정부, 인민의 친선의 정을 안으시고 중국을 방문하시였습니다. 나는 중국당과 정부와 전체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김정일총비서동지의 중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김정일총비서동지의 이번 방문이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어 중조관계발전력사에 찬란히 아로새겨지리라고 믿습니니다. 지난해 우리 두 나라는 중조의 교관계설정 60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력사상 처음으로 《중조친선의 해》와 관련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생기와 활력에 넘친 조중관계를 파시하였습니다. 지난 60년의 력사는 우리가 시종일관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정신에 따라 두 나라 관계발전의 정확한 방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멀리 앞을 내다보며 큰 국면으로부터 출발하여 서로 도와 주고 협력하면서 호혜와 공영을 실현하며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긴밀한 배합으로 사회주의위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리익을 함께 수호해나간다면 조중관계는 반드시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의 시련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발전되어나갈것이라는것을 증명하여주고있습니다.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우리 두 당과 두 나라, 두 나라 인민들의 귀중한 재부로서 조중친선을 시대와 더불어 전진시키고 대를 이어 전해지도록 하는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의 력사적책임입니다. 중국당과 정부는 중조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며 시종일관 전략적인 높이에서 조중친선협조관계를 틀어쥐고 수호하며 추동해나가고있습니다.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어제와 오늘은 물론 앞으로도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중국당과 정부는 조선당과 정부와 공동으로 노력하여 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끊임없이 추동하며 두 나라 인민들

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고 이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 큰 기여를 할것입니다. 오늘 근면하고 슬기로운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새로운 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친선적인 이웃, 친근한 동지, 진실한 벗으로서 조선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며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것을 진심으로 바라고있습니다. 나는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굳건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탐구하며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반드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끊임없이 거두리라 믿습니니다. 끝으로 나는 조중친선협조관계의 부단한 공고발전을 위하여, 조중 두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김정일총비서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조선동지들과 전체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호금도동지에게 감사전문을 보내시였다

배이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호금도동지

나는 친선적인 림방인 중국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 시각 우리를 따듯이 맞이하고 극진히 환대하여준 당신과 중국공산당 중앙령도집단의 친근한 동지들 그리고 배이징시와 친진시, 룡녕성과 대련시, 심양시의 간부들과 인민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방문기간 중국인민이 과학적발전판과 중국공산당 제17차대회정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차게 벌려 세기적락후성을 가시고 세인을 놀래우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수 있었으며 우리에게 대한 중국인민의 각별하고 진실한 우정을 다시금 체험할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 상봉과정에 리해와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혁명선배들이 물려준 고귀한 유산이며 공동의 재부인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나가는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를 다시금 확인한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조중친선이 두 나라 당과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새로운 생기와 활력에 넘쳐 대를 이어 보다 훌륭하게 강화발전되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형제적중국인민이 당신을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나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여 초보적으로 부유한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과 아울러 당신이 건강할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비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뛰어난 령도
력, 고매한 품모를 지
니시고 고귀한 생애의
전기간 그는 위업을
달수 있는 거대한 뜻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
지! 만물에 빛과 열을 주
는 태양 광선들을 위하
여 지휘관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
으로 따듯이 돌보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오늘
인민군대에서 증대장
은 만형으로, 증대정치
지도원은 만누이로 불
리우고있다. 김정일원
수의 령도를 받는 조선
인민군은 선군의 기치
따라 제국주의자들의
어떤 침략 책동도 단
면에 쳐물리칠수 있는
불패의 강군으로 자
라났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4월 29일 라오스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국립연극단에서 새로 창조된 경희극 《산울림》을 관람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경희극 《산울림》은 조선로동당의 농업정책을 높이 받들고 알파생산을 높이고 사회주의농촌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낙원으로 꾸리기 위하여 펼쳐나신 어느 한 산간지역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보람찬 생활을 펼쳐보이는 작품이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몸소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하신 경희극 《산울림》을 국립연극단에서 제작조하여 널리 공연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국립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림으로써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 세기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경희극을 새롭게 창조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국립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열국혁명과정에 이룩된 주제적연

극리론을 옹호고수하고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선군시대 미감에 맞는 사상에예술이 완벽한 훌륭한 경희극을 내놓는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사를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사상성은 물론 모든 형상요소들이 최상의 경지에 이른 경희극 《산울림》은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작품이라고 하시면서 조선의 근대와 인민의 사상교양에서 훌륭한 교본으로 되는 이 작품을 《김일성상》을 수여하도록 하시고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이날 핀란드 코핀포름토르보사 인터넷잡지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586군부대 지휘부를 방문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인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건군절

을 맞아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이 부대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비의 애국적헌신성과 대장적 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랑스런 위훈을 세운 력사있는 부대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적에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전투기술기체들을 돌아보신후 부대의 작전지휘실과 군사연구실들에 둘러서서 훈련정형을 료해하시었고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군부대 군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었다. 4월 28일 방콕파데슈 블리프통신문사는 인터넷을 위한 장군님의 사진을 모시고 그이께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586군부대 지휘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신 소식과 방콕국가합창단의 건군절축출연회를 관람하신 소식을 올렸다. 본사기자

자주권의 수호자 조선인민군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오스트리아 원에 있는 김일성주체사상연구 청년소조에서 4월 28일 불례전을 발행하였다. 불례전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사진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의 수호자 조선인민군》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불례전은 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된 조선인민군이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여온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불례전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일성원수께서는 1993년 4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시었다. 그의 선군정치에 받들어나가면서 조선인민군은 결정적 역할을 하고있다. 조선에서 인민군대는 사회주의건설의 주력군이다. 조선인민군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으며 나라를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강철의 보루로 강화하고있다. 김일성원수께서는 언제나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에 제시하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군인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세심히 보살펴주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지휘관들을 위하여 병사들이 있는것이 아니라 병사들을 위하여 지휘관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듯이 돌보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오늘 인민군대에서 증대장은 만형으로, 증대정치지도원은 만누이로 불리우고있다. 김정일원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은 선군의 기치따라 제국주의자들의 어떤 침략 책동도 단면에 쳐물리칠수 있는 불패의 강군으로 자라났다. 본사기자

절세의 위인에 대한 만민의 흠모심

폴로미아, 나이지리아 등 많은 나라에서 기념준비위원회들이 령이 조직되었다. 경제, 사회의 커다란 판심속에서 진행된 결성식들에서는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적도기네민주당 제1부총비서인 공포, 문화 및 판심 광성 부상, 에리트림족민주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저명한 인사들이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각국의 준비위원회들은 기념기간을 설정하고 절세위인의 발후의 저서들을 출판보급하며 토론회, 강연회, 김일성화전시회, 영화강화회 등 다양한 정치

문화행사들을 널리 진행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결성식장에는 오로지 인민의 행복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며 한평생을 강리리 바치신 인류의 영원한 태양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과 함께 김일성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회세의 선군령장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심이 뜨겁게 흘러 넘쳤다.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이떨러야지부 대표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김일성주석의 혁명애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지켜주시는 절실적위인의 한생,

복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지켜주고 계신다고 격찬하였다. 메히코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김일성주석께서 영웅적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선군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당창건 65돐이 되는 뜻깊은 2010년을 김일성민족의 력사에 투기할 혁명적대장사로 빛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세계도처에서 태양절기념준비위원회들이 결성된 사실은 20세기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인류와 함께 영생하신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조선은 주체의 강국, 사회주의 보루

태양절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높이 추대되신 17일에 즈음하여 몽골, 캄보디아, 라트비아에서 집회, 강연회,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가 4월 5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상, 주체사상, 인공지위성의 성공적발사는 조선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 주셨다. 캄보디아 ICC기술종합대학 학생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위대성에 대하여 잘 알고있으며 그분들을 끝없이 흠모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캄보디아의 독립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을 물심판으로 도와주신데 대해 캄보디아인민은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김정일각하의 선군평도일에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영웅국, 주체사상연수소, 라트비아전국조정위원회 인사들과 공중이 행사들에 참가하였다. 행사장에서는 연설과 발언들이 있었다. 몽골 주체연구센터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고계신데, 국제 친선 진품 판에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께서 전보적인인사들이 삼가 올린 수많은 진품들이 진품되어있다. 오늘 조선인민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진전하고있다. 나는 여러차례의 조선방문을 통하여 이 나라의 발전모습을 직접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인공지위성의 성공적발사는 조선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 주셨다. 캄보디아 ICC기술종합대학 학생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위대성에 대하여 잘 알고있으며 그분들을 끝없이 흠모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캄보디아의 독립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을 물심판으로 도와주신데 대해 캄보디아인민은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김정일각하의 선군평도일에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영웅국, 주체사상연수소, 라트비아전국조정위원회 인사들과 공중이 행사들에 참가하였다. 행사장에서는 연설과 발언들이 있었다. 몽골 주체연구센터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고계신데, 국제 친선 진품 판에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께서 전보적인인사들이 삼가 올린 수많은 진품들이 진품되어있다. 오늘 조선인민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만민의 친근한 어버이이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강성대국의 불보라》가 상영되었다. 몽골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전문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스웨리에, 기네, 이란, 베루에서 집회, 콰담화, 강연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4월 6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사진전시회장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행사장에서는 로씨야 《동일로 씨야》당 나호트까지부, 나호트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제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호수하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동지의 선군평도 따라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추고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기네 김일성주석과 학원주석, 이란국제대회도협회, 조선친선 마그살봉목장, 베루 김일성주의연구소의 인사들과 불보라가 참가하였다. 행사장에서는 연설과 발언들이 있었다. 스웨리에공산당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절정을 보면서 매우 감동깊이 회고하면서 김일성주석께서 지니신 정치활동가로서의 위인적모

와 권리제한의 선견지명, 해박한 지식에 감탄을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이 제국주의자들과 추종세력들의 끈질긴 압박공세에 맞서 자주, 자립, 자위의 주체의 강국, 사회주의보루로 굳건히 서있는것은 김일성주석께서 조선혁명을 현명하게 이끌어서 오시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스웨리에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를 해방하고 인민의 국가를 일떠세우셨으며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주석께서는 조선인민군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셨으며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제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호수하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동지의 선군평도 따라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추고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기네 김일성주석과 학원주석, 이란국제대회도협회, 조선친선 마그살봉목장, 베루 김일성주의연구소의 인사들과 불보라가 참가하였다. 행사장에서는 연설과 발언들이 있었다. 스웨리에공산당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절정을 보면서 매우 감동깊이 회고하면서 김일성주석께서 지니신 정치활동가로서의 위인적모

이 있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주석께서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와 인민을 구원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어떻게 이룩해 나가겠다는 하는 문제를 중심에 두고 조선혁명의 진로를 모색하시었다. 그의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과정에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창시되게 되었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현시대 자주위업수행의 지도리념으로, 필승의 보검으로 국제사회에 널리 공인되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잠시도 휴식을 취하지 않으셨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불태워오신 주석의 한평생은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길이 빛날것이다. 이란국제대회도협회 서기장파 이란조선친선 마그살봉목장 지메인은 위대한 수령님을 불세출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평도일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강성대국의 불보라》, 《조선의 대담》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베루에서 진행된 강연회에서는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전문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천출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

명석한 수수께끼 풀이
미국의 전 국무장관 알브라이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을 때에 있는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연회에서 알브라이트는 뜻밖에도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를 냈다고 한다. 내용인즉 열손가락을 가지고 단 한번에 16이 나오게 하는것이였다. 순간 연회장에는 긴장한 공기가 흘렀다.

열손가락으로 어떻게 수가 16이 나오게 할것인가? 쉽게 풀것 같으면서도 명석한 분석과 비범한 예지가 없이는 짧은 시간에 알아맞히기 어려운 문제였다. 바로 이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게 있는가고 하시며 참으로 명철한 해답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두손을

모시고 엄지손가락 둘로는 <> 표시를 하시고 나머지 팔쪽 네손가락을 꼭 쥐어보시었다. <몸하기> 방식을 표시한것이였다. 그것은 볼 순간 알브라이트는 무척 놀라와하면서 두눈을 크게 뜨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경탄의 정을 담아 제일 먼저 박수를 쳤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예지에 감복한 그는 저도모르게 그이에 대한 경모의 목소리를 터쳤다.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

오늘은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이다. 적십자는 흰 바탕에 붉은색으로 그린 십자로, 적반월은 흰 바탕에 붉은색으로 그린 반달로 표시한다. 적십자 및 적반월의 의미는 그 어떤 정복, 민족적, 정치적정격을 떠나서 인간의 고통을 방지하고 덜어준다 하는 인도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1859년 스위스상인 앙리 듀낭이 이탈리아북부지역을 여행하다가 전투에서 죽었거나 부상당한 수만명의 군인들을 보게 되었다. 황량한 들만큼 쓰러진 채 아무런 간호도 받지 못하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부상자들을 불쌍하게 여긴 그는 주변 마을사람들에게 호소하여 부상자들에게 대한 구호활동을 벌였다. 그 후 그는 전사자들을 구호하기 위한 조직을 내세울것을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앙리 듀낭의 노력으로 1863년에 《부상자들을 위한 국제구제위원회》(적십자국제

위원회)가 창립됨으로써 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시원이 열리게 되었다. 적십자국제위원회는 적십자의 기본원칙과 국제인도주의의 법을 고수, 보급, 적용하며 구호활동과 그 직접적결과로 인하여 발생된 군인 및 민간인 피해자들을 보호구제하고 구호활동을 예상하고 의료설비를 준비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적십자운동에는 전사뿐 아니라 병사까지도 자기의 능력과 사명을 수행할수 있는 새로운 적십자국제구제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1919년 5월 5일 적십자 및 적반월국제대회이 조직되었다. 적십자 및 적반월국제대회 임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모든 수단을 다하여 구제하며 매개 나라에서 적십자단체들의 제2차 세계대전 후 준비, 조직, 수행발조,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사회복지증진, 적십자운동의 원칙 및 리념을 보급하는 사업과 해

당 단체들이 얻은 경험을 교환하는 등 적십자본원칙을 수행하는것이다. 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은 인도성, 공정성, 중립성, 독자성, 자원적봉사, 단일성, 평등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하고있다. 이 운동은 세계적범위에서 전쟁과 각종 무력충돌, 자연재해 등으로 무너진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있어 자기의 기본사명으로서 갖고 국제적 및 지역적 협조와 연대를 적극 도모하고있다.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생활을 안락시키고자 하는 적십자 및 적반월국제대회들의 활동은 우리 나라에서도 진행되고있다. 세계적으로 적십자운동의 창시자 앙리 듀낭이 출생한 날인 5월 8일을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고있다. 올해에도 이날에 즈음하여 국제적으로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조선전시회 에스빠냐에서 개막

조선전시회 에스빠냐 바르셀로나의 《아시아》전시판에 4월 26일에 개막되었다. 전시판입구에는 우리 나라 기발이 게양되어있었다. 전시회장에는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있으며 영화영사실들이 갖추어져있었다. 《아시아》총극장은 조선의 문화정치를 세계를 놀래우는 높은 경지에 도달하였고 조선인민들의 조직력과 단결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성과는 훌륭한 평도자를 모신 인민만이 달성할수 있는 것이다. 전시회를 통하여 조선에 더 잘 알도록 해주신 김정일평도자각하께 진심으로 인사를 드린다고 말

들을 돌아보고 《메우어 솟아난 조선》, 《꽃피는 처녀》, 《월기도》, 《도라지꽃》, 《한 녀학생의 일기》 등 우리 나라 영화를 감상하였다. 그들은 전경같이 선군조선의 참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아시아》총극장은 조선의 문화정치를 세계를 놀래우는 높은 경지에 도달하였고 조선인민들의 조직력과 단결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성과는 훌륭한 평도자를 모신 인민만이 달성할수 있는 것이다. 전시회를 통하여 조선에 더 잘 알도록 해주신 김정일평도자각하께 진심으로 인사를 드린다고 말

하였다. 《아시아영화》국장은 조선의 찬란한 력사와 조선인민의 근면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조선영화들에 대해 감동되었다. 조선영화들의 특징은 다른 나라 영화들에서 찾아볼수 있는 독특한 매력에 있는것이다. 김정일각하의 탁월한 평도자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의 영화예술은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발전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바르셀로나종합대학의 한 교수는 전시회들의 훌륭함과 매우 감동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조선에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시회는 7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미국의 핵기지 철패를 요구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3일 해외에 있는 핵기지들을 철거할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있는 군사기지들에 많은 핵무기들을 배비하고있는데 대해 काफी 불만이라고 규탄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미국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핵무기전파로 규탄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미국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지역의 통합과 단결을 호소

브라질대통령 루이스 나지오 톨라 다 셀바와 베네수엘라대통령 우고 차베스 프리아에스 최근 브라질리아에서 있는 두 나라사이의 협조협정조인식에 한 발언에서 지역의 통합과 단결을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들은 남아메리카지역의 통합을 대륙의 경제장성을 가져올것이라고 말하였다. 남아메리카인민들의 단결은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나이지리아 대통령 사망

나이지리아대통령 알라지 우마루 무사 야라두아가 5일 병으로 사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전국이 7일간의 애도기간을 선포하였다.

이스라엘의 위협책동을 규탄

레바논수상 싸이드 하리리가 4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위협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공격적행동을 하고있는데 매우 감동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레바논에 대한 위협을 더 잘 알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시회는 7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미군징복기 추락

미국의 사수스 케틀라이나주에 있는 군사기지에서 2일 정전행사에 돌아치던 《아라》공격용헬기승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로 징복기는 박살이 나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

당사자인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항시적인 군사적위협과 경제제재에 매달리고있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일평도자께서 심화발전시키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구현하여 공화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로 전변시켰다. 우리는 세계각국의 지도자들과 출판보도계에 조선의 자주적용기를 지지하며 1953년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고 미국의 평화협정책동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을 호소한다. 【조선중앙통신】

미군징복기 추락

미국의 사수스 케틀라이나주에 있는 군사기지에서 2일 정전행사에 돌아치던 《아라》공격용헬기승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로 징복기는 박살이 나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미군징복기 추락

미국의 사수스 케틀라이나주에 있는 군사기지에서 2일 정전행사에 돌아치던 《아라》공격용헬기승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로 징복기는 박살이 나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미군징복기 추락

미국의 사수스 케틀라이나주에 있는 군사기지에서 2일 정전행사에 돌아치던 《아라》공격용헬기승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로 징복기는 박살이 나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미군징복기 추락

미국의 사수스 케틀라이나주에 있는 군사기지에서 2일 정전행사에 돌아치던 《아라》공격용헬기승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로 징복기는 박살이 나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미군징복기 추락

미국의 사수스 케틀라이나주에 있는 군사기지에서 2일 정전행사에 돌아치던 《아라》공격용헬기승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로 징복기는 박살이 나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미군징복기 추락

미국의 사수스 케틀라이나주에 있는 군사기지에서 2일 정전행사에 돌아치던 《아라》공격용헬기승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로 징복기는 박살이 나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미군징복기 추락

미국의 사수스 케틀라이나주에 있는 군사기지에서 2일 정전행사에 돌아치던 《아라》공격용헬기승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로 징복기는 박살이 나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